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신태영 알베르토, 정나미 모니카
다음주 독서: 장기철 스테파노, 신정혜 세레나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박경은 요세파나
다음주 복사: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반 주: 조은영 베다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정리 및 성당 문단속: 요한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03
매일미사: \$ 40
합 계: \$ 243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6월 5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6월 12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오늘의 묵상

성령께서 오시던 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자리에 있었고 기적의 음식을 먹었던 그들임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순교자들은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찌하여 당당할 수 없었는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순교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에게는 주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내면에서 솟는 힘과 용기였습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개입을 성령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아직 공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느 날 모습을 바꿉니다. 죽음을 초월한 모습으로 군중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낯을 뺏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정신을 잃을 만큼의 체험을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느끼고 만났던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이렇듯 자신의 존재를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의 전능을 깨닫는 체험입니다.

제자들은 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용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의 은총'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마음을 열기만 해도 '성령의 모습'은 깨달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령 강림 대축일]

2009년 5월 31일

<제1독서> 사도행전 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기 시작하였다.>

<제2독서> 코린토 1서 12,3-7.12-13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나이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우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20,19-23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 142(1-4절) 봉헌: 145 성체: 147 파견: 142(5-7절)

† <생명의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규성 토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제자들은 스승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렸다. 그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할 강력한 지도자 라고 생각하였다. 스승의 말씀과 기적의 능력 그리고 그 심오한 해안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상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스승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살해 당하고 만다. 스승은 이러한 사건에 대항조차 하지 못하였다. 제자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게 되었다. 스승의 가르침과 행적은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생존일 뿐이다. 그래서 더러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하였다.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일단 아무도 자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숨어야 하는 것이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아무도 눈치 챌 수 없는 숨겨진 장소에... 누군가가 그들이 숨어 있는 집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문을 꽂고 잠가 놓고서...

스승의 죽음과 함께 삶의 의미를 상실한 제자들에게 이세상과 이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협요소가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장소에 은닉하면서 희망을 상실한 채 폐쇄적이지 비관적으로 머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 어떤 이들에게조차 신뢰를 줄 수 없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들끼리 외로이 숨어 지낸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설사 누군가가 그것을 눈치 채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사는 모습을 드러내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다. 즉 자신들의 내면으로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과 이웃들로부터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킨다. 그것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장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집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또한 기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곳으로 오리라고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어둡고 폐쇄적인 모든 방어벽을 뚫고 들어와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신다. 예기치 못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발현은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도록 한다. 단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선사한 것뿐만이 아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몰래 숨고 자신을 철저히 은폐하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과한다.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 21). 세상에 대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신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삶이자 생명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선사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사 받은 성령은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자 생명이다. 성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 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원천인 것이다.

† <알려드립니다>

❖ 성당 여름 캠프가 6/20 (토)~6/21(일) 이틀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매디슨 북쪽의 Pine Lake United Methodist Camp 입니다 (<http://www.wisconsinumc.org/PineLake/index.html>). 작은 호수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캠프 사이트입니다. 캠프 참가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디만 (캠프측과 연락중), 어른 \$50, 18세 이하 청소년 (초, 중, 고등학생)은 \$30 (5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신청만 하시고, 참가비는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내시면 됩니다). 나누어 드린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목회장이나 행사 담당 사목위원 (강희만, 양지웅)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성당 공지사항에 답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셔도 (사목회장: jkhong2350@yahoo.com) 되겠습니다. 미리 여름 일정을 확인하셔서 많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름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 오늘은 미사 후 공동체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있겠습니다. 공동체의 저녁 식사를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성모회 자매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 바울이 >